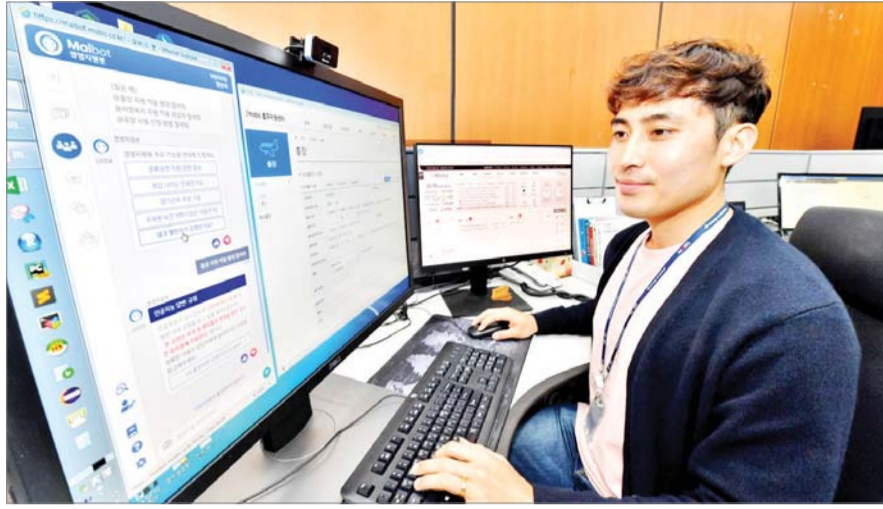


# 현대모비스, AI 챗봇 통해 1000만 사내정보 간편 활용

ICT기반 창의적 사고 확산 위해 AI 채팅로봇 '마이봇' 본격 도입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정보 등 메신저처럼 대화하며 간단 검색

#현대모비스에서 수소전기차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 모 책임연구원은 요즘 회사 빅데이터팀에서 마련해준 인공지능 챗봇(채팅 로봇) 재미에 빠졌다. 업무 과정에서 연구개발, 기술 동향에 대한 최신 문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챗봇이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다. 문서검색창에 '전기차', '수소차'라고 키워드를 넣으면 챗봇이 3만7000개 가까운 사내 문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매일 출장 보고서부터 최근 프로젝트 진행 문서 등 필요한 정보를 공유받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ICT 기반 사무환경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형 챗봇시스템 '마이봇'을 본격 도입했다.

현대모비스는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인 '마이봇(MAIBOT)'을 본격 도입해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한다고 15일 밝혔다. IC

T기반의 사무환경 혁신으로 업무 효율 향상은 물론 방대한 사내 지식을 활용해 미래차 분야 혁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를 확산시키기 위한 차

원이다.

마이봇은 '모비스 인공지능 로봇'의 줄임말이다.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능력과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직원들은 메신저처럼 마이봇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마이봇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하게 축적돼 있는 사내 지적 자산을 채팅 형식으로 간단히 검색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지식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마이봇에는 1000만 건 가량의 사내 문서가 등록돼 있다. 사례에서 보듯 현재 수소차와 전기차 관련 사내 문서는 3만7000건에 달하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관련 문서도 각각 7000여 건과 1만 건에 이른다. 이런 문서들은 글로벌 종합 부품사로서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쌓아온

지적 자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해당 조직별로 문서를 관리해 타 부서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에 제한이 많았다.

마이봇 핵심 기술은 현대모비스가 딥러닝 오픈소스를 활용해 자체 구현한 것으로 추가 비용 투자 없이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 인간의 신경망처럼 기계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질문자의 의도에 더욱 적합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마이봇은 지식 플랫폼의 역할 뿐 아니라 그동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편했던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했다. 회의실, 식당 등 예약관리, 총무지원, 담당자 연락처 등이 대표적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S전선 폴란드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LS전선 이동욱 폴란드 법인장, LG화학 장승세 폴란드 법인장, 駐 폴란드 선미라 한국대사, LS전선 구자업 회장, LS전선 명노현 대표, 폴란드 아르투르 비체 경제부 국장, 지에르조니우프시 다리우시 쿠츠하르스키 시장(왼쪽부터)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LS전선

## LS전선, 업계 최초 유럽에 생산기지

폴란드 케이블 공장 준공식  
배터리용품·광케이블 생산

LS전선이 케이블 본고장 유럽 시장 정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LS전선은 14일(현지시간) 폴란드 지에르조니우프시에서 케이블 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폴란드 공장은 전기차배터리용 부품과 통신용 광케이블을 생산한다. 국내 전선 업계 최초로 유럽에 세워진 생산기지다.

앞서 LS전선은 2017년 11월 폴란드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 법인(LSEVP)을 설립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LS EVP 부지에 광케이블 생산법인(LSCP)도 세웠다.

LSCP는 지난달 양산을 시작해 유럽 주요 통신사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유럽 전체 수요의 7%에 해당하는 연간 300만f.km 생산 능력을 갖췄다. LSEVP도 연간 전기차 30만대 규모 부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올해 말부터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 허창수 “변화·혁신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GS그룹 회장)

‘GS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 참석  
신사업 찾아 성장동력 확보 당부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GS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에 참석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창수 회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열린 ‘GS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에서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해 역량으로 내재화해야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 혁신적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해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창수 GS 회장.

올해로 10회째인 GS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은 매년 열리는 GS그룹 행사로 계열사들이 경영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그룹 내에 변화와 혁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자리다.

허 회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시장의 움직임과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어야 하고, 고객과 시장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잘 살펴서 그 변화의 맥락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이런 변화에 맞춰 회사 전체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시스템이라도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도전과 혁신의 DNA를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와 혁신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거나 소수의 참여자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며 “조직원 개개인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일상에서 체험하고, 그런 경험이 쌓여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때,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 SKT, 3~4만원 요금제 데이터제공 25% ↑

LTE요금제 ‘T플랜’ 개편  
전 구간 콘텐츠 혜택 강화

SK텔레콤은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고 콘텐츠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T플랜’을 일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T플랜은 오는 17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새 T플랜은 지난해 출시된 기존 T플랜과 월정액이 동일하다. 3만~4만원대 저가 구간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25% 늘리고 전 구간의 콘텐츠 혜택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새 T플랜은 ▲세이브(월3만3000원, 1.5GB) ▲안심2.5G(월4만3000원, 2.5GB+400Kbps) ▲안심4G(월5만원, 4GB+1Mbps) ▲에센스(월6만9000원, 100GB+5Mbps) ▲스페셜(월7만9000원, 150GB+5Mbps) ▲맥스(월10만원,

완전무제한) 총 6종으로 구성된다.

우선 세이브와 안심2.5G는 기존 T플랜 스펙(월3만3000원, 1.2GB), 레귤러(월4만3000원, 2GB) 보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25% 늘렸다. 이는 이통사 저가 요금제 가운데 가장 많은 제공량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세이브는 “T가족모아데이터” 공유가 제한되지만 스페셜, 맥스의 데이터 선물하기를 통해 8GB(기존 4GB)까지 공유받을 수 있다. 기존 T플랜 스펙과 고객을 살펴보면, “T가족모아데이터” 가입률이 10%대로 저조한 반면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 비중은 40%가 넘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고객 이용 패턴을 반영해 기본 데이터 제공량과 데이터 선물하기 용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SK이노베이션, 中 배터리 공장에 5800억 투자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에 집중  
2022년까지 4.5조 투자 확정  
연간 약 40GWh 생산력 확보

SK이노베이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해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2차전지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중국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출자를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커머스 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발표한지 2개월 만이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중국 내 배터리 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 배터리 공장 투자를 목적으로 총 5799억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를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은 추후 진행되며, 신규 배터리 공장 부지와 규모 등 세부적인 투자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2025년까지 연평균 26%씩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 신 성장동력’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두고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는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2010년 충남 서산에 첫 양산공장을 건설한 SK이노베이션은 헝가리, 중국, 미국에 차례로 공장을 건설하며

글로벌 생산 거점을 늘려가고 있다. 2022년까지 확정된 투자금액만 모두 4조5052억원에 이른다. 글로벌 공장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엔 연간 약 40GWh의 생산력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60GWh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누적 수주잔고는 2016년 30GWh 수준에서 2018년 325GWh, 올 연말 400GWh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양성운 기자